

중독과 은혜 (1)

등지선교회는 노숙자 6 명과 함께 신앙수양회를 가졌다. 수양회에 참석한 노숙자들 거의가 술이나 마약 중독을 체험했고 법망에 걸린 역사를 가졌으나 현재는 깨끗하고 등지선교회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지도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본수양회는 참석자 전원이 재충전되고, 믿음을 다지고, 변화를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금년에는 정신과 의사 Gerald May 란 학자의 저서 "중독과 은혜 (Addiction and Grace)란 책을 주제로 하였다. 참석하는 노숙자와 지도자 모두가 그 책을 읽고, 그책에서 얻은 소감과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발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었다.

저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하고 사랑받고싶은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로 시작해서 모든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일"이라고 결론을 짓는다. 중독문제를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세가지 중 어느한 쪽에 치우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의학, 심리학, 신학이 만나는 길을 열어주어 폭넓게 다룸으로 누구나 자신의 문제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독자들은 참여시켰다.

그 책의 저자는 모든 중독문제를 술, 마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독문제를 총 막라해서 다룸으로 마약, 술 중독자들이 자기들만을 죄인으로 본다는 피해의식과 방어태세에서 자유하게했고, 지도자들은 "우리는 너희들의 술, 마약 중독문제가 없어 깨끗하고, '너와 나'는 구별된다"는 우월의식도 벗어나게 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중독자이다: 술(단 2:3), 마약, 도박, 담배, 커피, 조코렛, 비만, 식도락, 일, 명예, 돈 (마 6:24; 눅 16:13), 탐욕 (골 3:5)집, 자식, 가족, 지식, 정치/권력(계 13:8), 쾌락/질투/증오(롬 6:19),성취, 성공, 자동차, 청렴, 운동, 낙시, 골프, 사랑, 거짓말, 도둑질, 영화, 음악, 죄의식, 스트레스, 가치관, 분노, 애완동물, 죽음, 인종, 자신/자만, 컴퓨터, 책임감, 자선, 종교등 200 여가지를 꼽는다.

의학적으로 중독은 우리의 두뇌가 위에 열거한 중독에서 즐거움을 체험하고, 점점더 많은 양을 원하게 되고, 취하지 않으면 견딜수 없게한다. 정신적으로 중독은 중독자로 하여금 어떤 것에 애착을 느끼고, 몰두하고, 사로잡히고, 집착/집념하고, 강박을 느끼고, 부착하고, 붙잡히고,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하고, 우리의 생이 중독의 지배를 받게됨을 말한다. 그러므로 중독은 정신적인 악성 종양 처럼 우리의 에너지 모두를 중독대상에게 집념시킨다. 저자는 영적으로 중독은 "우상"이란다. 중독의 대상들이 우리의 "거짓 신"이 된단다. 우리는 그 대상들을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정력과 시간을 모두 바친다. 사도바울은 중독은 "죄"라고 한다 (롬 6:6), 율법의 외식준수 (갈 4:8-9). 저자는 "죄는 윤리적인 탈선만이 아니라 속박과 굴종을 말한다. 신학적으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우리 서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터 돌아섬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중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갈망을 뺏고 중독의 종이되게 하니 우상이고 죄이다. St. Luke 대학 김철환 교수는 "하나님을 모실 자리에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우상이다.

답답한 것은 현대인들이 자신들이 모두 중독자임을 모르고 산다는 사실과, 현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모르고, 충실한 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사실이다. 사도바울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롬 7:15, 17). 이 말은 수양회에 참석한 등지 이사들과 노숙자들의 고백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